

스포츠게임의 에토스(ethos)와 담론 윤리

임 석 원*

주제분류 스포츠 윤리학

주요어 에토스, 담론윤리, 의사소통이론, 다원주의, 공정성

요약문

스포츠게임의 즐거움과 공정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도덕적 담론은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게임의 합리적인 규칙의 준수와 공정한 게임 수행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으로 스포츠게임의 에토스적 관점은 게임수행자의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의 에토스는 관습적 도덕규범으로 합리적 게임 운용의 근거로 작용된다. 그리고 스포츠게임에서의 담론 윤리는 의무론과 의사소통적 전제조건들로부터 도덕적 관점을 설명하려는 비판적 시도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논의된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방향이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스포츠와 같은 실천적 측면이 하나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운동선수, 심판, 감독,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대표들에 의해 지켜지는 재생산된 도덕적 미덕은 관용적인 담론윤리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공정한 게임을 보전하도록 결합되어진다. 물론 담론윤리가 탈관습적이고 탈계몽주의적인 윤리의 관심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담론윤리의 모습은 실제적 담론을 통하여 스포츠의 영속적인 의미조건인 공정성의 실천에 주목한다. 곧 스포츠의 의미조건으로서 공정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은 담론 윤리의 원칙으로 재구성된다. 왜냐하면 담론이란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정의는 평등을 보장해 주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 연성대학교

1. 서론

스포츠게임의 즐거움과 공정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도덕적 담론은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게임의 합리적인 규칙의 준수와 공정한 게임 수행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으로 스포츠게임의 에토스적 관점은 게임수행자의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의 에토스는 관습적 도덕규범으로 합리적 게임 운용의 근거로 작용된다. 그리고 스포츠게임에서의 담론 윤리는 의무론과 의사소통적 전제조건들로부터 도덕적 관점을 설명하려는 비판적 시도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논의된다. 그럼으로 스포츠게임의 에토스적 관점은 스포츠 수행자의 기술과 탁월성에 관련한 실천으로서, 그 참가자의 개별적 도덕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숙고되어야한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책임감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아울러 에토스를 수반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건들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반칙 행동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된다.

또한 이런 행동은 내용적으로 부정행위 조건에 합당한 경우가 아닐 지라도 규칙에 가식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규칙에 순응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최대한의 불공정한 이득을 끌어내는 행동일 것이다. 부정행위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동료 경쟁자를 제압하고 기만을 통해 불공정한 이득을 달성하려는 시도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 의사 없이 우연히 닥친 환경에 의해 그런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불공정함의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부정직한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공정함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 까지 하다.

예를 들어, 축구나 체스의 규칙은 축구경기를 하고 또는 체스게임을 하는데 있어 이에 대해 단순히 규제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 것과 더불어 게임을 수행하는데 대한 바로 그 가능성을 정초하게 된다. 축구나 체스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그에 적합한 규칙에 따른 행위에 의

해 구성된다. 즉, 구성적 규칙은 “규칙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그러한 활동을 구성하고”, 이와 반대로 규제적 규칙은 “규칙에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으로서, 즉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활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다. 구성적 규칙은 게임을 실현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개념적 구조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포츠 게임에서 이러한 상호 협력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여러 사람이 상호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협력하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러한 제한을 감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수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유사한 목인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에토스는 제한적이며 형식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규칙과는 조금 의미를 달리하여, 형식적 규칙이 바라보는 규범성의 범위를 넓게 살피어 포괄적이며 관습적 윤리규범을 그 의미로 가진다. 그리고 에토스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합의사항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보편적인 것을 그 성격으로 한다. 따라서 에토스는 능동적으로 부정행위에 대처하는 역할과 함께 스포츠의 구조적 목적과 그 참여자의 지향적 목적의 충돌을 조정해줌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토스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 중요함을 나타낸다. 첫째, 스포츠 규칙의 도덕적 원칙은 보편성과 공정성에 그 기초를 둔다. 둘째, 스포츠의 이상의 실현은 정직 또는 신용과 같은 덕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

담론 윤리는 의무론과 의사소통적 전제조건들로부터 도덕적 관점을 설명하려는 비판적 시도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논의된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방향이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스포츠와 같은 실천적 측면이 하나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운동선수, 심판, 감독,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대표들에 의해 지켜지는 재 생산된 도덕적 미덕은 관용적인 담론윤리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공정한 게임을 보전하도록 결합되어진다. 물론 담론윤리가 탈관습적이고 탈 계몽주의적인 윤리의 관심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담론윤리의 모습은 실제적 담론을 통하여 의사소통적 행위론의 도덕적 의미조건으로서 스포츠의 영속적인 의미조건인 공정성의 실천에 주목한다. 곧 스포츠의 의미조건으로서 공정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은 담론 윤리의 원칙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담론이란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정의는 평등을 보장해 주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2. 스포츠게임과 에토스

스포츠게임을 수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규칙에 의해 허용된 수단들을 사용해서 특정한 게임 상황을 발생시키도록 유도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규칙에 의해 허용된 수단들은 만일 규칙이 없을 때의 수단들에 비해 그 범위가 보다 제한적인 것인데 그러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게임의 매력에 몰입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을 수행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도이기도 하다.¹⁾

그리고 스포츠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 사회적 실천은 지적으로 실현가능한 행위를 위한 규칙이나 규범에 근거하여 일정한 합일점이 요구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언어의 규칙을 독단적으로 창안해 내어 자기 자신을 고립해서는 사회적 실천에서 규칙을 따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사적인 스포츠를

1) Suits. B(1972). what is a game p. 22. (R. Scott Krechmar 김창용 외 역 스포츠 철학 : 대한미디어. p266에서 재인용)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언어 역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포츠게임의 완고한 규칙을 주장하는 형식주의자의 도전에 대한 응수는 에토스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해결점을 마련한다. “형식주의는 다양한 게임 개념이 오직 형식적인 규칙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는 것이다.²⁾ 이른바 구성적인 규칙이 모든 외적인 게임의 조건과 완전하게 부합하는 경우에만 실현된다고 보는 형식주의적 견해에 대한 반대는 그것이 우리의 직관과 상식에 어긋나게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형식주의자는 ‘만일 우리가 게임 G의 사례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G의 규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러한 게임 G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 위반은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서 불가피한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³⁾ 예를 들어 농구의 공식적인 게임규칙에 따르면 농구는 “비-접촉”스포츠이다. 일반적으로 선수들 간의 육체적 접촉은 농구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프로 농구 게임은 사고가 빈번하다. 여기서 선수들은 우연이건 의도적이건 다른 선수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 물론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상황은 그 게임의 심판을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찰된 사고만이 반칙을 유발하게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사실은 적어도 특정한 상황에서 농구의 특정한 규칙을 간과함에 따라 서로 눈감아 주기 때문이다. 또 구단주나 관객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경기가 진행되는 것보다 더 많은 흥미를 게임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의도적인(사실상 그것이 규칙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

2) Loland, S. And McNameee, M. J. (2000) ‘Fair Play and The Ethos of Sports: An Eclectic Philosophical Framework’.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xvii: 63-80.

3) Ibid, p.14.

적 접촉이 없는 농구경기에 대한 실제 사례는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핸드볼을 꼽을 수 있다. 게임이 수행되는 방식은 이른바 9미터의 던지기를 유발하는 방어자에 의해 공격자를 저지하는 규칙에 따른 거친 신체적 동작을 포함한다. 비록 9미터의 던지기가 원칙적으로 반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의 핸드볼 기술과 전술의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측면일 것이다. 오늘날 수행되고 있는 핸드볼 경기는 그러한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반칙의 유발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농구의 형식적 규칙에 따라 제재방안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제재가 오히려 무시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 과정에서 간과되는 반칙움직임에 대해서 일일이 제재하는 것도 원활한 게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농구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그것이 함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협정에 따른 비공식적인 체계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게임의 공식적인 규칙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자체가 공식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규칙에서 이탈되는 반칙움직임은 사실상 발각되기 때문에 벌칙을 받게 된다. 농구의 공식적인 규칙을 해석하는 협정으로서 이러한 에토스는 선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고, 그들은 결국 공식적으로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게임의 심판을 유도하는 그러한 협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공식적인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으로 협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실천적 측면에 대한 탐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증과정을 통해 농구의 공식적인 규칙을 심판으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만드는 함축적인 경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협정은 결국 농구의 에토스를 구성해야만 한다.

결국 스포츠게임에 대한 형식주의자들의 오류는 중요한 실제적 삶의 차이를 간과한데 있다고 본 것이다. 더군다나 형식주의는 결과적으로 공평 다양한 경쟁들 간에, 그리고 부당한 경쟁간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

든다는 것이다. 사실상, 규칙 위반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실제적 삶에서는 농구나 핸드볼 경기에 대한 공정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 형식주의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규칙이 언제나 특정한 일반성 내에 있고, 그래서 그 실행은 해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규칙은 그 자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형식주의자들은 이전의 것에 대한 해석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은 무한하게 순환된다. 그러나 규칙의 체계도 그것이 구성하는 실행 내에서 가능한 행위의 다양성을 전적으로 충족시켜 준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쟁도, 특정한 경쟁에서의 단편적인 어떠한 행위도 이와 다른 경기나 행위와 결코 똑같지는 않다.

닐슨(P. Nilsson)의 지적에 따르면,⁴⁾ 스포츠게임의 규칙에 대한 해석이 경기가 치러지는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실행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젊고 아마추어 선수들보다 더 많은 기량을 갖고 있는 프로선수들은 팀의 능률과 이익을 위해 규칙 위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특정 지방의 문화와 팀의 전통을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같은 지역이면서 그 기량에 있어 수준이 같은 축구팀 가운데 규칙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라는 의미 있는 발견을 했다. 스포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확고한 형식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주의적 입장에 대한 부적절성은 스포츠가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언급을 위한 최상의 이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게임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규칙의 해석을 위해 공유하는 규범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다음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규범은 공유된다고 말

4) Nilsson, P. (1993) Fotbollen Och Moralen, Stockholm : Hls Forlag.

할 수 있다.⁵⁾ 첫째, 기초적인 규칙이 이해되는 방법에 관한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만 한다. 둘째, 경쟁자들 상호간에 기초적인 규칙에 대한 공통된 지식을 서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이것은 그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각각의 경쟁자가 규칙 해석에 대한 규범의 수용을 위해서 말과 행위와 같은 방식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 모든 경쟁자는 각 경쟁자가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규칙에 대한 어떤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쟁자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제 협력의 보다 발전된 형식으로서 경기를 이해할 수 있다. 테니스 선수는, 질문이나 토론의 여지없이, 다음과 같이 그들 상호간에 인정된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코트에서 움직이고 행동함에 따라 점수를 세고, 게임과 세트를 규정한다. 다른 팀이 프리킥을 할 때 축구 선수는 같은 동작으로 공에서 물러나는 동작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프리킥이 결과적으로 골로 연결된다면, 새로운 킥 오프를 위해 그들의 팀원과 서로 협력하여 다시 하프에서 다시 공을 차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 그들이 기초적인 규칙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 규범은 공유된다. 그러나 규범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테니스 선수 가운데, 심판이 실수로 좋은 볼(또는 세이프인 볼)을 아웃이라고 외칠 경우 선수의 행동과 책임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점수를 획득한 선수의 입장에서 심판을 옳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하는가? 축구 선수들 가운데, 소위 ‘전문적인 반칙’에 대한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있다, 여기에서 선수는 팀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고의로 파울을 유발하기도 한다.

5) Newcombe, T. M., Tuner, R. H. And Convers, P. E. (1996) Social Psychology. The Study of Human Intera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롤랜드(Loland)와 맥나미(McNameee)에 따르면, 모든 스포츠, 그리고 개별적인 모든 스포츠 경기는, 규칙의 해석을 위한 공유된 규범이 도전받게 되고, 합의를 통해 다시 정해지게 되며, 재조정되는 언어적이고 구체화된 논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규칙의 해석을 위한 규범이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라 할지라도, 트랙 경기, 육상경기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구기 경기와 같은 중요한 스포츠는 역사적으로 급진적인 규칙 변화가 거의 없고, 규칙 해석에 있어서의 극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 왔다.⁶⁾ 대부분의 스포츠는 비교적 안정된 사회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가 본다.

형식주의적 도전에 대한 그의 해결은 게임의 에토스를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공유된 규범에 관한 이념을 설정한다. 이러한 에토스는 ‘...그러한 게임의 형식적인 규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약속’으로 구성된다. 그는 여기에서 ‘...게임의 형식적인 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식적이고, 함축적이며, 경험적으로 결정 가능한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다.⁷⁾ 형식주의는 논증이 다양한 게임에서 일탈된 개념을 정의하면서 게임의 에토스가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실패한 이론으로 간주한다.

또한 게임의 에토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임에 관한 설명은 형식주의적 설명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수많은 사실과 직관을 제공한다. 그리고 에토스의 우월성을 농구의 사례를 통해 보면 “가장 광적인 관객은 농구 게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금지된 행동 규칙이 들어 있다면 농구의 극단적인 이상한 게임을 결코 수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게임은 형식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구의 이상적인 게임이

6) S. Loland & McNameee(2000), p.67.

7) D’Agostino, F. (1981) “The Ethos of Game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VIII: 7-18.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게임에 대해 의식하는 ‘상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종류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사실상 ‘용인 가능한’ 것에 따라 농구의 우월한 에토스가 설명된다.”⁸⁾

스포츠 게임의 심판들은 좀 더 좋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반칙이 야기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곤 한다. 만일 그러한 공식적인 행동이 형식주의자의 관점에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게임의 에토스에 따른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아고스티노(D’Agostino)는 “물론 축구와 같은 게임은 ‘이점을 살리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게임 심판이 허용하는 공식적인 규칙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경우 게임에 대한 형식주의자의 설명은 특히 비형식주의자의 설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게임의 경우 우리는 게임의 에토스의 부분이 공식적인 규칙과 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결코 모든 게임과 관계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구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다면 게임의 에토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임의 설명만으로 충분할 것이다.”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게임의 에토스적 접근은 구성적이고 규제적인 규칙간의 차이를 단호하게 구별하지는 않는다. 농구 또는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기 위해, 농구와 핸드볼에서 규칙이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이 스포츠의 고유한 목표라고 불렀던 (구성적)정의에 관한 해석을 위해 공유된 규범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에토스는 사람들 간에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고유의 목표를 해석하기 위한 공유된 규범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토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명문화된 규칙에 대해 그 해석의 다양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8) Ibid, p16.

비록 서로 다른 그룹의 선수들 간에 축구의 규칙에 대한 해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말한다.

스포츠게임의 에토스를 게임에서 규칙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분할된 그룹 규범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관습은 어떻게 게임의 형식적 규칙이 구체적인 게임 상황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 “비공식적이고 함축적인, 게임의 형식적 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지배하는 경험적으로 결정 가능한 합의”라는 것이다.⁹⁾ 따라서 게임의 에토스에 대한 도입을 통해 형식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의 주장은 게임을 정의하는데 있어 게임의 에토스에 대한 역할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게임의 에토스는 일련의 비공식적이고 함축적인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이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되는 게임에 대한 비-형식주의적 설명을 토대로 게임으로부터 파생된 유사한 규칙위반에 대하여 게임의 형식적인 규칙과 에토스를 서로 종합하여 현실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형식주의적 설명인 게임에 대한 에토스가 결합된 설명은 강력한 형식주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반칙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⁰⁾

에토스에 대한 관념은 스포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일련의 게임 규칙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곧 문화적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게임의 환경에 따라 에토스를 적용함으로써 규칙에 따른 허용 가능한 행위들 간의 특징적인 차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성”은 경기 참가자의 요건으로서 형식적인 경기 규칙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공유된 에토스를 위한 것으로 규정한

9) Ibid, p.13.

10) Ibid, p.17.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스포츠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게임의 에토스를 지켜야만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게임의 에토스 관념에 기초한 이와 같이 재수정된 공정성은 비록 에토스의 관념을 기초적 규칙에 대한 공통된 해석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도덕적 기준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¹¹⁾ 그러나 즉, 본래적으로 오류일지도 모르는 관습을 용인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이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 게임의 에토스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인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에토스적-접근은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가장 중요한 비판은 분명히 상대주의와 연관된다. 경기 참가자들 가운데 에토스를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그 어떠한 종류의 규칙 위반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에토스에 대한 강한 주장이 대부분의 스포츠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스포츠의 정신이 규칙 위반의 수를 높게 허용한다면, 그러한 규칙 체계는 명백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행에 관한 개념적 구조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급진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갖는 그러한 에토스 각각의 경쟁자 그룹들 간의 경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공유된 규범은 거의 없고 문제가 되는 스포츠는 변질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규칙 해석에서 차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규칙 위반의 수를 극소화 해야만 할 것이다. 곧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포츠 에토스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에토스가 갖는 상대주의적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Ibid, p.17.

3. 스포츠게임과 담론 윤리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공정성 규범은 게임의 자발적 참여와 에토스가 정당할 경우 게임의 에토스는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게임의 에토스를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게임을 즐겁게 만들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개방된 장을 열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를 게임 수행의 윤리적 상황에 따라 에토스를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덕적 다양성과 합리성에 대한 개방은 담론 윤리가 근대적 삶에 대한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기초적 전제에 부합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민주적 상황에서 자발성에 따른 실제적 담론의 도덕적 근거와 합의의 탐구가 중요시 된다. 따라서 담론 윤리는 의무론과 의사소통적 전제 조건들로부터 도덕적 관점을 설명하려는 메타 비판적 시도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논의된다. 의무론적 윤리학의 인지주의는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실천이성을 측정하는 사람들에 오해를 받아왔고 그것은 경험주의적인 시각에서 도덕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에 기인한다.¹²⁾ 다시 말하면 담론 윤리는 좁은 의미에서 도덕원리의 보편타당성 내지는 보편학으로서의 규범윤리학의 정당성을 선험화용론적 논증방식에 의존해서 상호주관적 의사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수행의 선험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학문 이론이다.¹³⁾

그러므로 인간이성의 도덕적 인식과 관련해서 도덕이론 자체를 양분화하는 것은 윤리학의 인지주의를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칸트(Kant)적 전통에서 도덕적 관점은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12) J. Habermas(1990) 담론윤리의 해명 : 이진우 역 pp148.

13) J. Habermas(1990). p.66.

물음들에 관한 윤리적 담론을 도덕적 논증으로 대답하려고 한다. 그럼으로 도덕 이론에 있어서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한 경험주의적 반박의 일부는 지식, 합리성, 진리에 관한 협소한 개념들 즉 칸트적 의미에서의 실천이성이 발붙일 수 없는 현대 경험과학을 추종하는 개념들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 판단들은 감정 태도, 또는 결정들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자기이해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강한 가치판단으로 동화된다. ¹⁵⁾

담론윤리적 정당화의 기획은 합리성 주장들로부터 도덕적 규범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들의 논증규칙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추론의 전제에는 논증의 합리성 주장들이 속할 뿐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행위 또는 기초적 규범을 근거 짓고자 할 때 직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의 상세한 규정이 속한다.¹⁶⁾

그럼으로 도덕적 정당화의 담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포괄적인 물음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구조화된 생활세계의 사실은 도덕적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판단에서도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덕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규칙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도덕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상호주관적 상관관계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참여자들은 상호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실행적 태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의무 구속적 규범들의 수신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¹⁷⁾

14) J. Habermas(1992). 담론윤리의 해명, 이진우 역 pp148.

15) H.-G. Gadamer, "über die Möglichkeit einer philosophischen Ethik", Kleine Schriften I (Tubingen, 1967), 179쪽 이하(이진우 역 p162 재인용)

16) J. Habermas(1992).담론윤리의 해명 : 유흐켄하버마스 지음 , 이진우 역 pp164.

17) J. Habermas(1992). 담론윤리의 해명 : 유흐켄하버마스 지음 , 이진우 역 pp186-187.

물론 담론윤리에 대하여 아펠(Apel)은 담론윤리학의 최후정초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문제에 주목했다. 스포츠의 의미조건과 보편적 의무윤리학의 근본원칙(공정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은 정의의 담론 원칙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담론이란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해주는 원칙이기 때문이다.¹⁸⁾ 또한 아펠은 첫째로 담론윤리의 근거정립이 순수의무론의 추상화에 있지 않고 현실적 의사소통 공동체와 이상적 의사소통의 조건들을 전제한다고 본다. 둘째로 담론윤리는 실질적 규범의 근거정립을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형성에 위임하는 절차적 원칙이 되게끔 선행성에 대한 도덕명령을 구조변경 시킨다. 셋째로 담론윤리는 선천적 선의지나 신념을 전제하는 의도의 윤리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담론윤리는 보편타당성 요구를 가진 정의의 윤리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개별적 기획 및 문화연관적인 전통들의 가치다윈론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을 부가해야 한다.¹⁹⁾

그리고 여기서 의사소통 행위의 개념은 행위자를 객관적 사회적 주관적 세계 안에서 어떤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 상호적인 타당성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는 말하는 자이자 동시에 듣는 자로서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위자는 객관적 사회적 주관적 세계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곧바로 관계를 맺지 않고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다른 사람이 그 표현의 타당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비추어 대상화한다.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표현들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서 다시 말해 그들이 상호간에 제기한 타당성 주장들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해는 행위조정 메카니즘으로 가능하다.²⁰⁾

18) 정응근, 송형석 공저(2002), 스포츠와 인간 p 129, 이문출판사

19) K.O.Apel(1998) 다산 기념강좌(윤형식 외 역 담론윤리의 선행화용론적 근거 정립) 제2강연 담론윤리 모형

20) J. Habermas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유르게하버마스 지음(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장은주 역 p. 170.

스포츠에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의 제공과 연관된 논의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정의가 비록 수많은 방식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지라도,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와 고통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스포츠 게임에서 형식적으로 분배된 부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 즉 승점, 득점, 승부, 체형 그리고 경기자들 사이에서 최종적인 순위 등의 게임 이득으로서 분담에 따라 실현된 가치일 것이다. 분담이란 즐기는 것, 희열, 그리고 좋은 게임을 형성하는 것에 따른 변화가능성이다. 스포츠 게임에 대한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정의(Justice)에 대한 의미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규범은 롤랜드에 의하면 “만약 자의적으로 스포츠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토스가 정당할 경우 게임의 에토스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운동 성과로 여길 수 있기 위한 명확한 규범 마련 그리고 그 경기의 수행에 있어 기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는 경우이다.”²¹⁾ 여기서 공정성 규범은 만족할만한 방식에 따라 경쟁적 상황을 조장하는 비판적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우월성의 측면에서 한 쪽 팀이 다른 쪽을 전적으로 승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논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 수행의 맥락에 따른 정의에 대한 경쟁적인 해석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손들어 주는 것이 합당해야 하며, 공정성 규범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스포츠 게임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고, 비교하며 순위를 매기게 될 때, 이에 따라 선수 각자의 경기력 수행의 차원에서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에 있어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에

21) Loland, S. (2002) 'Fair Play In Sport'. London & New York.

토스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포함해야만 하며 그러한 경기의 수행과 연관된 해석도 선명해야 할 것이다.²²⁾

경기력 수행에 따른 의미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기와 연관성을 갖지 않는 불평등한 요인은 제거되어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경기의 외적 조건, 적어도 몇몇 스포츠에서의 장비의 문제에 따른 불평등은 곧 다양한 측면에서 규칙의 파기를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은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그 수행에 있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게임에 대한 의미 있는 에토스를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게임의 에토스를 받아들이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태도는 스포츠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개방된 장을 열도록 해준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견해를 그 윤리적 상황에 따라 에토스를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기준이 있다고 여긴다. 도덕적 다양성과 합리성에 대한 개방은 이른바 “담론 윤리학”에 대한 기초적 전제 가운데 특정한 것에 부합하기도 한다. 담론윤리는 나아가 심각하게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 이해들 간의 충돌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 스포츠 윤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펠과 하버마스(Habermas)는의 담론윤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면 의사소통윤리이다. 담론윤리는 그 자체 의사소통윤리의 기본원리와 관심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규범의 문제를 다룬다. 다시 말해 담론윤리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적 원리를 대화의 당사자들이 이미 전제하고 있거나 거부할 수 없는 대화의 조건들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²³⁾

22) Ibid, p.22.

23) Ibid. p.24.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이론가 가운데 하나인 위르겐 하버마스(Habermas)는 담론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적인 상황에서 자발성에 따른 실제적 담론의 중요성을 도덕적 근거와 배경에서 합의를 위한 탐구로 담론윤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들만이 실천적 담론에서 참가자로서 그들의 역량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²⁴⁾고 ‘담론윤리의 특징적인 견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는 특정한 조건과 규칙이 다음과 같은 추론에 따르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담론윤리는 연관된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진리에 대한 상호 협동적 추구에 따라 받아들이는 과정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보다 더 나은 논증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천적 논의는 공적이어야만 할 것이고 ‘말과 행동에 대한 능력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²⁵⁾ 자아 중심적 관점은 공동선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포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의 입장에’ 적용되도록 묻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이익이 동등한 비중과 고려에 의해 주어진다. 측면에서 ‘이념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공적 소유에서 약속을 이행하도록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목적은 각 그룹들 간에 정직과 헌신이라는 측면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속고를 통해 그들이 동의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신하는데 따른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실천적 담론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이 동의한 해결 방식에 부합하는 총체적 결론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도덕적 정당화는 힘의 평등성에 대한 화용론(話用論)적 근거(pragmatic reasons)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내재적 근거(internal reasons), 말하자면 도덕적 통찰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

24) J. Habermas(1990), p.66.

25) Ibid, p.198.

논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논증에 의존하게 된다.²⁶⁾ 하지만 비판가들은 하버마스의 이론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담론에서 보다 나은 논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 완전한 정직성을 갖추고 자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찾기 어렵다. 담론은 강력한 관계성, 힘, 조작적 논증, 그리고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압력으로부터 결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버마스는 실천의 양식으로서 의사소통적 행위의 관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의사소통행위는 사람들 상호간의 언어적 이해와 관련된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행위(예: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상품을 선전하는 행위- 목적론적 행위)나 사회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여겨지는 규범을 따르는 행위(예: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설득하는 행위 - 규범적 행위)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여 들어내는 행위(예: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행위 - 연출적 행위) 등과는 구분된다.²⁷⁾ 다른 행위들에서도 언어가 사용되지만 그 경우 언어를 통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이해는 다른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차적이지만, 의사소통 행위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이해, 이해도달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상호이해가 가능해야 언어의 다른 기능들이 비로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형식적인 실천적 지식과 관련된 기능적 지식이 기술적-도구적 관심에 따른 과학적 지식의 개념으로 어떻게 대체되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른 지식은 숙련자(공)들의 영역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실천적 판단, 감성적으로 개입된 통찰, 지각과 현명한 행위, 그의 관점에 따른 덕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²⁸⁾

26) Ibid, p.57.

27) Ibid. p.58.

여기에서 덕윤리는 스포츠에서 형식적인 이상적 정의라 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에 대한 기술적이고 행위-지도적 내용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요구된다. 우리는 그러한 설명을 한정된 덕에 대한 통합 목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상호 연결된 복합망과 폭넓게는 스포츠에 대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전통을 스스로 산출하는 질서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담론 윤리학에서는 실제적 담론(actual discourse)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요구된다. 즉, 에토스는 실천적 측면에서 실현되는 게임 없이는 상호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고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는가?²⁹⁾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스포츠 게임의 제도, 게임의 전 후 활동, 정책문서의 담론이나 여론이 아니라, 스포츠 게임 자체의 실천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우리가 고도로 형식화된 국제 스포츠 경기나 공원 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게임을 언급하더라도 게임 자체는 페어플레이의 이상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따르는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측면과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달려있다. 스포츠 게임이 없다면 스포츠의 제도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텍스트나 연설의 담론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스포츠 게임은 거창하게도 실현가능한 것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특정한 협력을 요구하는 관습에 지배당하는 특정한 규칙이 있다. 무엇보다 게임은 실천에 있는 것이며 그런 다음 공정한 게임과 공정하지 않은 게임의 패러다임적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에토스에 따라 규정되는 공정성 규범이 어떻게 실천에 적용될 수 있을까? 게임의 경우 담론은 단어나 논쟁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포츠는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게임이라는 ‘분담된 목적’에 따라 협동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롤즈(Rawls)는

28) Ibid.

29) S. Loland & M. J. McNamee(2000), p.71.

그럼으로 “게임에 있어 선의의 경쟁은 모든 선수의 공통된 욕구”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중요시되는 궁극 목적과 공동 활동을 함께 갖는 사회적 연합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과학과 예술은 알기 쉬운 사례가 된다. 마찬가지로 가정, 친구관계 그리고 다른 집단들도 사회적 통합체들이다. 그런데 보다 단순한 운동 경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네 가지 종류의 목적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른바 점수 계산과 같이 그 규칙이 규정하는 대로 경기의 목적과, 경기를 벌이는 선수들의 여러 가지 동기, 즉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될 즐거움이나 운동에 대한 욕구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선수들이 알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혹은 그 사회에서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 경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반성적 관망자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끝으로 훌륭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모든 선수들의 공동 목적이나 공동 욕구가 있다. 이러한 공동 목적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경기가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양편이 다소 비슷한 상태이며 그 선수 자신들이 모두 좋은 경기를 했다고 느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모든 사람은 바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훌륭하게 운영된 경기는 모든 이의 협동을 요구하는 공동의 성취물이다.³⁰⁾ 이것은 게임이 어렵거나 거칠거나 분명하게 의견의 일치가 없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도전은 게임에 대한 틀을 설정하게 되고, 많은 방식에서 통합된 담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게임에서 통합된 담론은 항상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행동에서 파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통상 그것은 외재적 요인에 따른 가장 성공적인 수행능력을 가진 자이다. 즉 승리자는 에토스의

30)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핵심적인 규범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예는 새로운 에토스가 모든 새로운 게임에서 협상하고 수립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롤랜드와 맥나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행위이건 그렇지 않건 인정받기 어려운 권위적 목소리로 도덕적 배타주의와 승리자를 비판하는 것은 담론 윤리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답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히 엄격한 기술적 규칙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규범에 따라 발생하는 담론으로서의 윤리학을 의미한다. “윤리는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언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으로 분담된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윤리는 상황에 따른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기대로 인해 형성된다. 윤리의 기능은 문제의 해결이나 목적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제도의 유지(분명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에 달려 있다.”³¹⁾

이렇게 이해한다면, 게임 담론은 경험, 기술 그리고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준, 그 밖의 다른 주장보다 먼저 제기되고 모든 참가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고무시키는 게임의 전통과 사회적 규범에 토대를 둔 논증이나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³²⁾ 게임의 에토스는 선수가 참여를 통해 사회화를 실현하는 일반적이고 특정한 그리고 지역 게임의 전통과 게임의 관념에 의해 형성된다. 선수들의 에토스에 대한 지식은 경기장에서 표현되고 협상되는 암묵적이고 통합된 지식의 습관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페어플레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함께 단지 공정함의 관점이 아닌 좋은 게임의 관점을 포함하는 에토스의 관념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³³⁾

31) Dunne, J. (1997) Back To The Rough Ground, ‘phronesis’ And ‘techne’ In Mordern Philosophy And In Aristotle.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32) Morgan, W. J. (1994) Leftist Theories of Sport: A Critique And Reconstruc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33) S. Loland & McNamee(2000), p.71.

그렇다면 좋은 스포츠 게임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스포츠 게임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해당되는 특정한 답변은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모든 스포츠 게임이 측정되고 비교되는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경기자의 능력에 따라 참가자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스포츠 게임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달콤한 긴장”이라는 표현처럼 특별한 경험적 가치는 좋은 게임의 경험이 주는 현상학적인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좋은 게임이란 모든 단계에서 불확실할 때 그 긴장이 발휘된다.

그것은 좋은 스포츠 게임의 현상학적 구조에 대한 잠정적인 표현을 의미할 따름이다. 게임 결과의 불확실성은 각기 다른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 게임은 도덕적 규범을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도덕적 행위자는 그들 자신의 육체적, 도덕적 한계를 탐구하며 그들을 과거와 현재 세대로 연결시켜주게 된다. 게임의 의미,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의미, 탁월함의 기준에 대한 의미는 다양 할 수밖에 없다.

맥킨타이어(MacIntyre)는 스포츠 게임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두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내재적 가치는 바로 게임을 진행하는 실천 속에서 실현된다. 그들은 건물의 벽돌인 동시에 각각의 특정한 게임에서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달콤한 긴장”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규칙에 따라 그리고 내적인 가치에 포함된 탁월함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실천 없이는 내적인 가치를 맞출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경쟁자가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달콤한 긴장”이 생기게 될 것이다.³⁴⁾ 반대로 외재적인 가치는 많은 다른 분야에서 노력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권위, 지위, 메달, 그리고 금전일 것이다. 외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참가자의 경우 그 목적이 게임에 참가하는 것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경쟁의 마지

34) Ibid, p.73.

막 위치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만이 있을 따름이다.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은 자신의 속임수로 게임을 함으로써 일등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적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공정성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그들에 따른 탁월한 규범이란 정당하지 못한 게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승리만 하면 되는 것이다.³⁵⁾

여기에서 핵심적인 측면은 성공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감독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해당 스포츠에서 적합한 개념을 통해 전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그 실천이라는 최상의 전통을 보존하고 재창조하며 각 세대에 그러한 전통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훌륭한 스포츠 경험은 도구적 가치가 없이는 반감될 것이며 동정심, 공정성과 같은 가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결국 스포츠 실천과 질서 그리고 실천 자체의 내적이고 외적인 가치 사이의 균형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제공하는데 따른 평등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페어플레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내적 가치를 의미하는 에토스의 개념을 포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참가자들은 그들이 참가한 게임에 대한 탁월성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하게 된다. 진정한 게임 담론은 공정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방법, 의식, 역사와 게임의 탁월성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실천으로서 선의 의미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의식이 요구된다.³⁶⁾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와 그것에 수반되는 선에 대해 좀 더 언급해 보면 게임의 내재적 가치와 연관하여 선수는 승리를 위해 경기를 한다. 스포츠는 기술적인 행동을 통합하는 경기를 결정함에 있어 결과에 대한 상호 탐색을 하게 된다. 잘 알려진 아이러니가 그 본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배타적인 목적에 대한 추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목적의 구조 내에서 도구적 전략에

35) Ibid.

36) Ibid, p.74.

따라 상호 결합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념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리를 형성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러한 도구적인 추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미덕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그 성격상 도구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게임에 임하는 선수로서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정직, 충실성 그리고 신뢰성과 같은 도덕적인 미덕은 물론 인내, 용기, 결단력 그리고 자기 통제와 같은 “행위-도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미덕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물론 그 밖에도 고상함, 정중함, 참을성 그리고 위엄, 도량, 우아함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에토스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과 그 제도를 확장시키는 미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³⁷⁾

그렇다면 윤리적 담론에서 요구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스포츠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도덕적 인식은 도덕적 판단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어플레이에 따른 행동에 영향 미치기 위해서는 행동의 전략을 생각하기에 앞서 일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동료나 경쟁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판단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한계를 세워주어야 한다. 스포츠 게임의 전통, 관습 그리고 탁월성의 기준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실천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전달된다.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능적인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능적인 태도는 불필요한 장애물(즉, 스포츠 규칙)을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시도로 표현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공식적 표준에 얽매이는

37) Ibid.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스포츠 논리는 공정하고 정직한 측면에서 고결한 행동의 표준적인 기준과 스포츠의 실천에 들어있는 행동 자체에 대한 적당한 방식들에 얽매이게 한다.”³⁸⁾

우리가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이 다만 공정하게 게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의 내재적 가치를 위한 의미와 그러한 측면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공정함에 대한 규범은 이제 페어플레이의 규범으로 발전될 수 있다. “스포츠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게임의 에토스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에토스가 정당하고 그것이 내재적 가치에 대한 적합한 평가와 이기기 위한 게임의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게임의 에토스를 지켜야 할 것이다.”³⁹⁾ 특정한 스포츠게임에서의 도덕성은 항상 정확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거되고 도전받으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 게임 담론은 경험, 기술 그리고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준, 그 밖의 다른 주장보다 먼저 제기되고 모든 참가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고무시키는 게임의 전통과 사회적 규범에 토대를 둔 논증이나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⁴⁰⁾

4. 결론

스포츠게임의 에토스는 선수가 참여를 통해 사회화를 실현하는 일반적이고 특정한 그리고 지역 게임의 전통과 게임의 관념에 의해 형성된다. 선수들의 에토스에 대한 지식은 경기장에서 표현되고 협상되는 암묵적이고 통합된 지식의 습관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의 방향이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있다고 하

38) W. J. Morgan(1994), p.225.

39) S. Loland & M. J. McNamee(2000), p.75.

40) Opcit. p.225.

더라도 우리는 스포츠와 같은 실천적 측면이 하나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거기에서 윤리적 담론은 풍성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스포츠의 전통과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에 기반한 도덕적이고 심리적으로 얽여있는 견해 일치는 모든 참가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확보될 것이다. 특정한 스포츠 게임에서의 도덕성은 항상 정확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도전받으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 게임의 도덕성은 운동수행 능력을 통하여 구현되는 측면도 있음으로 페어플레이를 해석할 때 이상적인 것은 에토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함축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게임의 당사자들이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게임의 에토스를 지켜야 한다. 만약 에토스가 정당하고 내적 가치의 적절한 평가와 게임을 위한 승리의 태도가 있다면 게임의 에토스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협동심이 사회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협동은 공정한 것이고 페어플레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규칙과 에토스에 의해 인도되는 행동은 경험에 의해 주어진 시간과 장소로 단순하게 환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운동선수, 심판, 감독,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대표들에 의해 지켜지고 재생산된 도덕적 미덕은 관용적인 담론윤리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페어플레이를 보전하도록 결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정응근, 송형석, 『스포츠와 인간』, 이문 출판사, 2002.
- Dunne, J. (1997) Back To The Rough Ground, ‘phronesis’ And ‘techne’ In Mordern Philosophy And In Aristotle.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D’Agostino, F. (1981) “The Ethos of Game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VIII: 7-18.
- H.-G Gardamer, “uber die Moglichkeit einer philosophischen Ethik”, Kleine Schriften I (Tubingen, 1967)
- J. Habermas(1990) 장은주 역, 의소통의 사회이론, 관악사, 1995.
- J. Habermas(1990) 이진우 역, 담론윤리의 해명, 문예출판사, 1997
- Loland, S. And McNamee, M. J. (2000) ‘Fair Play And The Ethos of Sports: An Eclectic Philosophical Framework’.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xvii:63-80.
- Loland, S. (2002) ‘Fair Play In Sport’. London & New York.
- Morgan, W. J. (1994) Leftist Theories of Sport: A Critique And Reconstruc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Nilsson, P. (1993) Fotbollen Och Moralenm, Stockholm : Hls Forlag.
- Newcombe, T. M., Tuner, R. H. And Convers, P. E. (1996) Social Psychology. The Study of Human Intera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O.Apel(1998) 다산 기념강좌(윤형식 외 역 담론윤리의 선형화용론적 근거 정립) 제2강연 담론윤리 모형.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 Scott Kretchmar,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김창룡, 안용규, 김홍식 역, 스포츠철학, 대한미디어, 2001.

The Ethos of Sporting Games and Discourse Ethics

Yim, Suk-Won (Yeonsung Univ.)

Where do pleasure and fairness come from in a sport game, and why should moral discourse be discussed? It can be found from the observation of a game's reasonable rules and practice of fair game playing. Thus, the view of an ethos to a sport game demands a game player's moral responsibility because a game's ethos works as the ground for operating a game reasonably based on conventional moral norms. And discourse ethics in sport games is discussed from what is about critical attempts to explain a moral perspective from deontology and communicative preconditions. It is a known fact that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value in contemporary society lies in diversity and pluralism. We can understand that practical aspects like sports provide the field. The moral virtues preserved and reproduced by sport players, judges, coaches, and delegates in the system come to be combined so that idiomatic discourse ethics and communicative behavior can preserve a fair game. Of course, discourse ethics is not the interest of post-conventional or post-enlightenment ethics. The aspects of discourse ethics focus on the practice of fairness, the permanent semantic condition of sports, through practical discourse. In other words, as the semantic condition of sports,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principle of justice are restructured into the principle of discourse ethics because discourse premises a mutual, equal relationship and justice is the principle that secures equality.

철학탐구 제35집

Key words: The ethos of sporting games, discourse ethics, pleasure and fairness come from in a sport game

임석원 e-mail: siscia@naver.com

| | |
|-------|---------------|
| 투 고 일 | 2014년 04월 15일 |
| 심 사 일 | 2014년 04월 27일 |
| 계재확정 | 2014년 05월 13일 |